

조선이후 고승비문 체계화

지관스님 '한국불교고승비문총집' 발간

불교사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조선시대와 근현대 불교사 연구의 초석을 다질 자료집이 나왔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스님이 불교사 연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승비문을 발굴, 정리한 <한국불교고승비문총집>을 펴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사찰과 폐사지에 남아 있는 고승들의 비와 읍지(邑誌)나 사지(寺誌)에 전해오는 비문을 빠짐없이 조사해 수록한 이 책에는, 충주 청통사 보각(1327~1392) 스님의 비문에서 부산 북천사 도해(1934~1995) 스님의 비문까지 6백여 년간 전국 각지에 세워진 332기의 고승비문의 전문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휴정·유정 등 조선시대 고승들과 지운·성철·탄허 등 근현대 고승들을 비롯하여 사신·묘공·혜타·수욱·인홍·보현·세만·법희 스님 등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8명의 비구



지관스님

니들의 비문도 실렸다. 고승의 행장을 기록한 비(碑)는 입적 후 몇 년 이내에 옥의에 세워지지만 재질이 석재이므로 가감하거나 철삭할 수 없어 일차 사료로서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불교사 연구의 핵심인 승사(僧史)나 교학(敎學) 및 교유(敎遊)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다.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탓에 불교사 연구를 위해 참고할 만한 문헌이나 사료가 부족해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까지 <해동승적문>, <조선승적문>, <한국승적문> 등 비문을 다룬 책들이 발간되긴 했으나, 조선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고승들의 비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했다.

지관 스님은 "조선시대나 근현대 불교 연구에서의 핵심은 스님인데, 학계의 관심은 몇몇 권승(權僧)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며 "비문에는 조선조 역불정맥을 건디

전국 332기 전문 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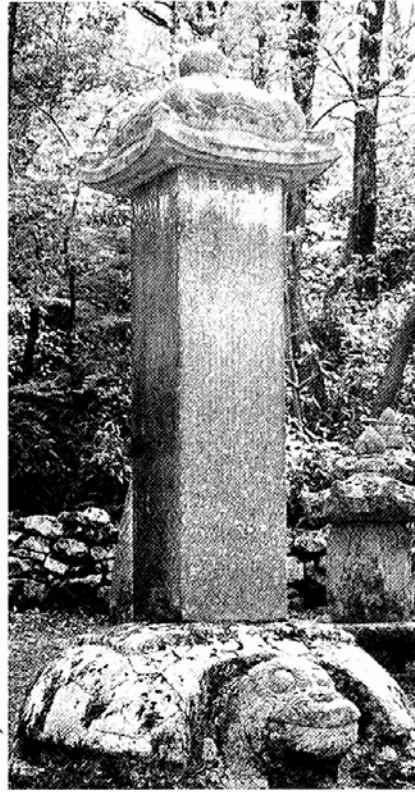
교리·인물 등 연구 자료

어내며 수행의 재직을 놓지 않은 스님의 삶과 수행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당대 불교의 교리, 인물, 제도 등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 건립에 동시대의 문사(文士), 서가(書家), 재가(才家)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는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 예술의 결정체"라며 "이 책은 불교사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경제사' 등도 면밀히 살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지관 스님은 93년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고려편 1·2·3·4, 조선편에 이르는 6권의 저술을 발간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7일 오전 12시 '한국의 집'에서 <한국불교고승비문총집 조선조·근현대>와 <가산불교대사전 3권>의 출간 법회를 봉행한다.

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전남 해남 대흥사 청허당 휴정대선사 탑비.

사찰 편액을 찾아서

26 권상로의 심원사·표충사 편액

퇴경 권상로(退耕 權相老·1879~1965)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나, 1896년 문경 김룡사(金龍寺)에서 서진(瑞眞)을 은사로 득도하였다. 그는 김룡사 불교전문강원을 마치고, 원종(圓宗) 종무원장부장, 문경 대승사(大乘寺) 주지, 조선불교월보사 사장, 불교사 사장,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 불교조계종 원로회 원장, 동국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퇴경은 일생을 한국 불교학의 정립과 불교사상의 선양에



심원사 명주전



표충사 고령정

명주전

예서체 필획 진중한 글씨

고령정

꾸밈없어 보는 눈 편해

전남하였던 근대의 고승이며, 조선불교사 등 30여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펴낸 위대한 불교학자였다.

퇴경은 7세부터 10여 년 간 서당에서 한학을 배워 서법에 구애 받지 않고 각 체에 능했으며, 학자다운 고박(古朴)한 글씨를 썼다.

현재 사찰에 남아 있는 편액으로는 서울 화계사(삼각산제일선원), 철원 심원사(명주전), 밀양 표충사(예제문), <고령정>, 문경 대승사(사불산대승사), 영주 회방사(회방사) 등이 대표적이다.

철원 심원사(명주전) 편액은 '일인자자일 팔십사세 사문 퇴경 상로(壬寅自宗日 八十四歲 沙門 退耕 相老)'라는 관자(官字)와 '퇴경 권상로인(退耕 權相老 印)'이라는 방인(方印)이 있다. 명주전은 명부전, 지장전, 시왕전의 이칭으로 지장보살이 명주(明珠)

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불인 전각의 명칭이다. 이 편액은 1962년 자자일, 즉 하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7월 보름에 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질박(質朴)한 필획의 예서로 진중(鎭重)한 서미(書味)를 지녔다.

밀양 표충사(고령정) 편액은 변죽 없는 통편에 음양각으로 글씨를 새긴 것으로, 액판 좌측에 '퇴경(退耕)'이라는 관자만 있다. 이 편액은 현재 박물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데, 1839년(헌종 5)에 시작된 표충사의 이전과 관련된 편액으로, 표충사가 옛 영정사(靈井寺) 터로 옮겨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꾸밈없는 고박(古朴)함에 의한 문기(文氣)가 어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글씨이다.

를 듣고 있기 때문에 불인 전각의 명칭이다. 이 편액은 1962년 자자일, 즉 하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7월 보름에 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질박(質朴)한 필획의 예서로 진중(鎭重)한 서미(書味)를 지녔다. 밀양 표충사(고령정) 편액은 변죽 없는 통편에 음양각으로 글씨를 새긴 것으로, 액판 좌측에 '퇴경(退耕)'이라는 관자만 있다. 이 편액은 현재 박물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데, 1839년(헌종 5)에 시작된 표충사의 이전과 관련된 편액으로, 표충사가 옛 영정사(靈井寺) 터로 옮겨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꾸밈없는 고박(古朴)함에 의한 문기(文氣)가 어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글씨이다.

각필악보 발견

고려 불교음악 실체 확인

법현스님 성암고서박물관서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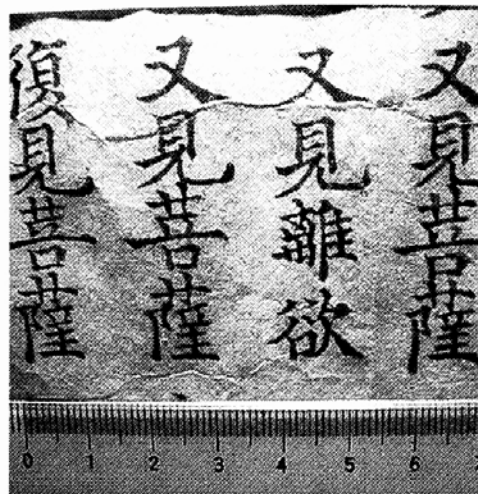
잃어버린 1천년 전의 불교음악을 복원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 법현(동국대 국악과 교수) 스님은 29일 성암고서박물관 소장품으로 신라말~고려 초 경전으로 추정되는 <묘법연화경> 1권과 8권에 각필로 된 악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각필은 먹을 쓰지 않고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 뿔 등으로 종이에 눌러 쓴 것으로, 이번에 발견된 각필 악보는 법현의식에서 불경이나 계승을 읊는 안채비 소리를 부호화한 것이다.

법현 스님은 "중앙 최초의 악보로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유향악보인 <경간보> 보다 4백년 정도 앞 서 제작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고려시대 음악의 형태 및 음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묘법연화경>이 경전인 만큼 훼손하지 않고 표기하기 위해 각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연구실장은 "각필이 일본에서는 많이 발견됐지만 우리 나라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은 최근으로, 이번 각필은 고려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에 발견된 각필을 악보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전을 독송할 때 편리하도록 음표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악과 음운연구에 시료적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현 스님은 불교문화가 찬란히 꽃피웠던 신라·고려의 불교음악 악보가 하나도 없는 데 의구심을 갖고 악보의 존재를 추적하다가 탕화에서



묘법연화경의 각필악보. 옆으로 주름처럼 보이는 선은 현자의 사성, 음 높이고 음 길이를 부호화한 것이다.

묘법연화경 1, 8권

안채비 소리 부호화

는 것이다.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묘법연화경>은 두루마리 형태의 목판본으로, 총 7권의 기존 판본과 달리 총 8권으로는 처음 발견된 회귀본이다. 8권의 <묘법연화경>은 중국의 수·당대 유행했으며, 고려대장경 초간(1010년) 이후 나온 국내 판본은 총 7권으로 되어 있다. 또 공표를 수여 종이를 이어 붙였고, 고려대장경이나 중국 판본에는 없는 한자가 사용된 점을 미루어 신라 말이나 고려 초 국내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종욱 기자

"간화선, 화엄비판서 출발"

인경스님, 보조사상연 학술회의서 주장

"고려말에 등장하는 간화선은 화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데서 출발했다." 인경(동국대 강사) 스님이 '보조지눌의 집중적 탐구'를 주제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의 제12차 정기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인경 스님은 '화엄 법계연기설과 간화선 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화엄과 간화선은 언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며 "화엄의 경우 언어로 나타나는 의미 체계를 중시하는 반면 간화선은 그 의미 체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인경 스님에 따르면 보조 스님은 <화엄론정요>에서 의미 체계를 중시하는 화엄의 입장에 대해 "그런 태도로 관(觀)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은 한낱 장애일 뿐 관(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경 스님은 "보조 스님이 내세운 간화선의 특징으로 마음의 장애를 없애는 도구적 기능, 진리를 분별과 사고의 과정 없이 직시하는 현량적 기능, 의미 체계를 뛰어넘는 메타언어적 기능 등이 있다"며 "이것은 실상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간화선의 수행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불교학연구회 11일 정기 학술회의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는 11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불교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서울길(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는 학술회의에는 '불교 페미니즘의 현황과 전망'(하정남), '(비즈나)에 관한 논변'(이종철), '여말선초의 화엄종계의 동향'(황인규), '무기의(석가여래행적승)에 나타난 사상'(이병욱) 등이 발표된다. (02)2260-3128

"불국사 기단·석등 남산의 돌 사용"

좌옹주 교수 과학적 감별

한국을 대표하는 석조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의 석재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좌옹주(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석재 출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전남 대지질' 측정법을 이용, "석굴암 석재는 포함산,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석가탑·다보탑 등의 석재는 남산에서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 측정법은 바위 등에 자기장을

씩면 암석에 포함된 자성을 띤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석재의 유사성과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좌 교수는 우선 포함산 화강섬록암, 흑운모 화강암, 남산 화강암 등의 대지를 값을 측정하고, 석굴암 등에서 추출한 시료의 대지를 값과 비교했다.

이외에도 좌 교수는 불국사와 건축 연대가 비슷한 경주 북쪽의 나원리 5층 석탑이 남산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을 밝혀내고, "당시 신라의 성지인 남산의 돌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학설을 반박했다. 좌 교수는 "당시 재상인 감대성의 권력이 왕에 버금가 남산의 돌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312쪽 8,000원 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 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海印 <화엄경>의 '능인해인삼매증해인海印三昧'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광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렸다는 <해인도>는 '십바라밀도'라고 고도 불리는데,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海印 皆入極樂'란 구절이 있다.

르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

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꿰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써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르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까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재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르스승의 맘에 오순신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르러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서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마력 앞에서 당신은 실이 뚱뚱도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르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책방 정신세계 문화재단(02)737-8115
인천점(0343)466-2288, 광주점(033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